

醫學「트루도우」의 랍프

大韓結核協會理事

醫學博士 李 在 珪

폐결핵(肺結核)을 심공적으로 치료하게한 세계 최초의 의사는 인류의 은인이 아닐수없다

「에드워드·리빙스턴·트루도우」 선생이 바로 그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폐결핵으로 신음하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들은 트루도우가 인식이 결핵의 황야에 커놓은 「랍프」의 평명을 찾을것이다

一九〇〇년 첫날 나는 배설이 무거우게 났던「트루도우」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뉴-욕」 주의 북방 「카나다」 국경에 가까운 살지인 까담에 저장이 일찍이 온다고하여 이때면 벌써 눈이 푹푹이 쌓이게된다. 그러나 「트루도우」 선생의 동상(銅像)에 감배하러가는 길에서만 눈이 깨끗이 치워져있다. 이곳사람들의 친절함이 이러한비에서도 보인다. 그의 동상은 전나무숲을 배경으로 선생이 안경을 낀하고있는 모습인데 남묘로 허반신을 복은히 둘러싼 모습 드러누운 자세를 한것으로 인류의 폐결핵은 불치의병이 아니고 안성요법으로 치유하게 된다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러 함이리라 평소엔 한번만이라도 이곳에 감배하였으면하고 그리워하는 뜻이니만치 이다지도 유유히 안정하고 계시는 선생의 동상앞에 스게되니 감개 이불바없나

X X X

「트루도우」 선생이 그의 만년에 쓴 자서전 가운데「알리던 의 랍프」라는 동화물 비유하여서 적어놓은 대목이었다. 이 랍프는 앞애나 높고 어두만지기만하며는 금은보개 아름다운 궁전 그의에도 부익이고 소원하면 소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마술을 하었다한다. 트루도우도 알리던처럼 한 랍프를 얻었는데 이것은 사탄의 동정을 가지다주는

마술을 쓰였다. 이 마술의 힘을 빌어 「트루도우」는 전인미답의 황야애다가 폐결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편히 쉬게하는 요양의집을 이루어 놓았다

그는 이집에서 신선한 공기와 안정과 영양이라는 세가지 요소로서 폐병을 고치는 최초의 인간실험을 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랍프애다가 심원을 기우린 연구의 기쁨을 붓고 열성의 불길로서 뽕게된나을 높이 세상밖애 달아놓았다. 그집밖애 황야에서 길을 잃고 무서움과 전방축애 해애이다가 가까움곳애 등불기 반박이되는것을 만견한다면 얼마나 반가울가?

「트루도우」는 자기의 랍프의 빛은 과학의 연구로서 불치의 병과 사망에서 벗어나 회복의 기쁨과 새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그의 본명은 「에드워드·리빙스턴·트루도우」인데 一八四八年十月五日 뉴-욕에서 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인데 유달리 대자연을 사랑하여 항상 산과 들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있어서 이때때는 집을나가 수년을 산속의 아메리칸·인디언들과 사귀어놀기도하고 신기한산새들의 표본과 보고서를 발표하 기도하였다. 유전을 받아 「트루도우」 선생도 그의 아버지에게 못지않게 산림을 사랑하였다. 선생은 세살때 조부그을 따라서 불란서로 이주하고 그후십五年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지낸후 그들은 미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뉴-욕애 정주하였는데 남시 선생은 제나라말이지만 영의외화에 부자유를 느끼게있었다한다. 그러나 뉴-욕애는 상당히 근친들이 많이 살고있어 그들과 재밌게 지냈다. 어느날 사촌누나의 소개로 「메아」 양을 알게되고 그어자와 백년을 해로한 부부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첫번의 회우는 단순하였다. 그것은 몹시 더운 어

튕날 오후였는데 선생은 배야양이 시골서 처음올려와 여행가방을 들고 자기의 사촌의 집을 찾고있을때 노상에서 만나 그여자의 목격한 여행가방을 받아들고 제법 초원한 언덕길을 절절매면서도 안그런체하고 올라간 데서 시작됐다. 배야양의 여행가방은 이적나 무거웠는지 선생은 노년에 가서도 이 기억을 자서전에 기록하고있다.

—내가 만일 다시대어나 일생을 배 마음껏 다시 살아본다면 다른일에는 어러가지로 불만하지만 목적인 여행가방을 나에게 들린 날신하고 혼죽한 그세악씨와의 부부생활은 언제까지나 뒤무리하기를 초원한다. —자서전 중에서

소년 트루도우가 아직 자기의 전노물학 경하지못하고 있을무렵 그의 생애를 결정적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의 친형이 그때 해군군과학교를 마약 중입하고 사관으로 초임되자마자 심병으로 자력에 옮겨되었다. 형제의 우애가 지극한 그는 병든 형을 간호하려 고초부의 데오로 갔는데 그형의 병이 알고보니 폐결핵 —그때말로 소위 폐부족중이었다. 그렇지만하여도 폐부족중이라면은 사형선고나 전매없이 알고있었고 전염경로(傳染經路)나 치료법도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않았다.

—우리들은 한방 한침대에서 자고깨고 했다. 나는 형의 계수도 시켜주고 식사도 날리더주며 또 형이 경침이나 아랫중으로 내려가고싶어하면 업고서 중계를 오르내리기도하며 때때로우숨끼디이야기나 즐거운 표정으로 옆에 떠있는 형의 병고와 의모움을 더러우려고 애썼다 당시의 의사들은 나에게 형의병이 전염되지않도록 아무런 지시하는일도 없었을 더러 드리어 나에게 절대로 방문을 어러시 밤알 찬바람을 드리지 못하게 명령조지하였다. 형은 숨이 쉼쉴 더 가빠지시 경문을 조프만 열이 심시하공기를 넣어달라고 애원하여도 나는 의사의

명령이 있는까닭에 두지하였다.

얼마나 전술할 일이나! 병자의 숨은 더욱 가쁘게하여놓고 이럴 나에게는 그만 전염이 되게하여 놓다니. 차라리 이버릴 의사의 명령은 없는것만못하다. 나는 내자신을 전염에서 방이하고 또 무함으로있는 신선한 대기(大氣)를 마시게가이 이로써 많은요우들의 진정한 요양법을 전파하여야할것이다. —도두트우 자서전에서

십칠세의 소년으로 형의죽음은 단장의 슬픔이였겠지만 그가 형을 임종까지 간호하였다는 사실은 후일 그가 결핵 의사가 되는데에 크게 이바지할줄로 안다.

형의 병사후 트루도우는 의사가 되리라는 결심으로 뉴-욕시에있는 「길레지·오부·피지산쓰·앤드 시이진쓰」에 입학했다. 그때까지 업모하던 배야양과는 一八七一年 이듬에 결혼식을 올리고 해상으로 신흥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귀국에 트루도우는 폐결핵의 징후가 나타났고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만하면서도 결핵에 대한 지식이 막약한 그시절일이라서 조기방결(早期發見)을 오히려 두려워하여 그냥남어두고 「통·아이랜드」에 사랑의보급자리를 정하고 일년간의 신흥생활을 하였다. 그후 다시 뉴-욕으로 와서 어느 병원의 조수가 되었지만은 이때는 벌써 심한 피로감으로써 의사의 전진을 아녀받을수 없게되었다.

전환의 경과는 왼쪽 폐가 상당히 침범되어 있더는것이다. 폐병은 불치의 병이다 하는것이 그때의 의학계의 상식이었기 까닭에 트루도우의 일기에는

—내가 의사에게 인사를하고 병원문을 나올 나숨때 췌지가 까마득했다. 나는 기절할상 싶었다. 모든것은 언제 나는 상관없고 광명은 사라졌다. 내가 폐병이라니? 언제는 죽는드리어의에 무언이있나? 나는 내눈으로 형의 죽음을 보았다. 나의 애통한 기정은 나의 정태의 이름다운 꿈은 모든것을 이제 그만

이다. 난지 설방과 피치 못할 길만이 있을 뿐 —

그날의 「트루도우의」 심정은 암담하였으니, 죽을수밖에 없는 운명앞에서 그는 이후의 날을 어떻게 마칠것인가 생각하였다. 세상을 떠날날이 앞으로 얼마 없다면은 평소와 사뭇하는 태지인의 위대한 평화속에서 살것 아름다운 경치나 바라보면서 죽으리라 마음에 착정하게 되었다. 「아디몬다」지방의 삼림속! 이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을 때는 호수불과 옥이진 숲으로 향하는 애정이 불현듯하여 「풀·스미스」정자에 찾이를 했는데 그는 지친대로 지치었지만 호기려 눈감고 죽을곳에 나달렸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남에게 있어 생자의 이승 침대에 높이여지고

「당신은 말린 명태보다 더 가볍군」 하며 놀리움을 바너도 그는 노하지 않았다 죽기전에 한번더 이 산천을 보게 되었다는 이열로 그의 가슴은 중박하였는 까닭에.

날이가고 말이갈수록 이상하게도 산중생활은 그의몸에 건강을 찾아주었다. 입맛이나고 일민이 되고 지긋지긋하던 신일이 불려갔다. 九월철에 드리시는 심오 폰드의 체중이늘고 기운도 다시나서 뉴-욕으로 도라오게 되었다. 뉴-욕에서는 그의몸은 다시 조묘해가서 그나음해는 그끝에서 겨울을 지탱하기 어려울것만 같이 어찌할수없이 겨울이 닥쳐오는데에도 다시 그리운 아디몬다의 산으로 찾이가게 되었다.

산중 피서지인 정자주인은 겨울에는 손을 받지않고 있었다. 그때까지 이곳에 와서 일동하는이는 없었고 또 췌병에는 겨울에 온화한 지대를 찾아가는것이 그때의 상식이다. 「트루도우의」후생직에는 죽으리운 것이지만 주인을 실득시키어 번방하나를 얻었다. 부인은 그후 이런것 무아이불 배리고 눈덮인 길을 남편을 찾아 산성(山亭)에 도착하였지만 하마하면 도중에간 어버일행은 눈보라에 파묻쳐 버릴권한적도있다 이듬해봄이 와서 먼디 도의지에서 사람

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왔을 때에는 그들은 병은 「트루도우」가 주운 겨울을 산성(山亭)에서 지냈다는 소문에 알렸고 또 그의건강이 좋아진것을 보고 두민기름 날랐다. 모든 사람들은 「트루도우」에게 호기심과 동심을 보내었고 서로 만나 사귀는 중에 친구가 되어버렸다.

그해 겨울(一八七六년) 산성에서 약삼십리쯤 떨어진 곳에있는 「싸라탁·베익」 호수가로 이주했는데 그곳은 저우 두세집이 살고있는 환포이었다. 그후로 이곳에 정주했다. 「아디몬다」지방의 주운 겨울일기가 도리어 온화한것보다 췌병에 좋은영향을 주는데 아닐까하고 이제대의 자인과 신비에 동경하여 찾아드는 환자와 그가죽이 차차로 늘어나서 기리는 이부게 되었다.

一八八二년 여름 「트루도우」는 「자타탁베익」에다가 요양원을 세울 야망을 품고 뉴-욕으로 내려가서 친지들을 방문하고 기부를 실득하였다.

제걸핵은 불치의병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요양원을 짓겠다는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을망정 그의 열성과 인격에 동경하여서 그가 「싸라탁베익」으로 드라왔을때에는 드친분이라는 거액의 기부가 거출되었다. 이돈을 기금으로 카테지(적은 건물)식 요양원을 짓기 계획하였니. 먼저 기지를 정하는문제가 생겼다. 그는 사냥을 즐겨서 항상 각가운 「피스가」산에 간일이 있던관계로 그곳의 지령을 잘아렸다 약간 엇비스듬한 산허리에 차차 여호 목을 노리면서 여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든 그곳이 마음에 드었다. 바람이 마커 잔잔하며 양지 바른곳임을 그가 어호물기다리는동안 늘 체립하고는 했기까닭이다. 총을 들고 묵묵히 앉아있으려면 민산우에늘과 울창한 숲과 시냇물의 흐름의 아름다움을 즐긴을 바라보며 태자연에 심취한 곳인 까닭이다. 젊은 「트루도우」는 이곳에 있어 인생과 죽음의 신을 명상하고 앞날을

꿈꾸는곳이여 명하니 아즈텍 이처럼 허공에
다가 장래의 대요양원을 그려본 곳이 가
담이다.

트루도우의 꿈은 현실화 되었다.

그당시의 일반병원은 결핵이 전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가담에 다른 보통환자와 뒤
섞어 놓았다. 그러나 트루도우의 요양원을
결핵환자만을 입원 시켰다.

一八八三년—월에 타성된 미국 최초의요
양원은 오늘날 의학사상의 유명한 유물도
남아있는 「紅」의 저은집이다. 두명의 여
직공이 제병으로 입원한것이 최초의 요양
자이다. 그러나 그후 수십년 一九一五년경
에는 트루도우 요양원은 세계에 자랑할만
한 대요양원이며 또 결핵연구소가 되고있
다.

트루도우가 싸나토리움에서 환자와 더불어
터 입장을 연구하고있는중 독일의 세균학
자「코호」는 一八八二년 결핵균을 발견하
였다. 지금까지부터 六십년전에 전염병은 세
균으로 만이아마 생기는것이라는 학설은 확
실히되었었다. 트루도우는 코호의 발견에 비
슷한 흥미를 가지고 결핵균의 체외에서의
배양을 실험하기도하였다. 만지 그는 자기
가 졸업하학교에서 집미경으로 결핵균을
전염하는데 성공하고 싸라라 레이」으로 노
리와 손수 실험실과 실험기구를 만들었
다. 만지 그의 일기에는

— 보잘것없는 저술학 실험실이지만은
나는 정밀과 상상력으로 결핵균을 증복
하는일에 착수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최
중이 성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나의 후배들이 기려갈 명칭만이라도 이
러구어야 하겠다. —

수년후 최초의 손수마를 실험실은 석유
모민은 부딪기에서 인화하여 화재를당하고
그 타버린 재우에 새로운 신식연구소가 건
립되어 오늘날 많은 학자와기술자를 끌려
내고있고 지금은 미국의 세균은행(細菌銀
行)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연구에 분명한 두두

도우에게 새로운 시련은 타쳐있다. 심구세
기말의 경제공황은 그의 요양원의 존망을
위태롭게하고있었다. 이익과 빈곤한나미지 그
는 자멸하여버린 작으까지 세유회이 있다
그러나 그의 마술의 람프는 아직도 불을
밝힐수있었다. 이세상에서 트루도우처럼 정
말 친구를 많이갖은 사람은 티없을것같다
그친구들은 그를 막강의 구명이에 비려놓
지않고 구원해주었다. 트루도우자신도 왜 이
처럼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주는지 의심할 지
경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안다. 그것은 그
의 인격이 주는 마력에서온다.

돈있는 친구들은 더많은 벨딩을 지어주
고 기금을모아주며 젊은 조수들은 또한 환
발히 환자를 돌보아주었다. 트루도우는 자
기의 요양원은 우정의 전정채이라고 말하
고있다.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면 기후 안정(安
靜) 대기 및 영양이 이만한 작용을하는가
하는데 트루도우는 과학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으로 유기었다. 토끼를 다
섯마리씩 세대로 나누어서 제 一군에다가는
매양한 결핵균을 접종하고 조수함의 적은
무일도에 자유롭게 방치하여 마음껏 먹고
쉬고 자도록 하여놓고 제 二군에다가는 우
에와 같은 방법으로 접종하고 이듬고 슬
하여 공기의 유통도 같아나되는곳에 가두
어두고 제 三군에다가는 전인 접종을 하지
않고 다만 제 二군과같은 풍지같은 환경에
다가 두었다. 그결과로 결핵균을 전염시
키지않으면 결코 결핵이 생기지않으며 결
핵균이 일단 체내에 드러가드라마도 환경과
영양에비라 그결과가 매우 달라지는것을 아
렸다. 즉 제 二군은 죄나죽고 제 一군은 다
섯마리중 한마리만죽고 맺은 결과가 회복
되었으면 제 三군은 죄악은했으나 결핵병은
생기지 않았다. 이 실험의 결과로 트루
도우는 더욱 환경과 기후 신진한공기와 영
양 그리고 규칙있는 생활조건이 싸나토리
움 요법이 권적이 되는것을 더욱 확신하
였다. 실험의학에 있어 이성의 원칙은진
(61頁에계속)